



제11대 광주시장 직무인수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시청 간부 및 인수위원들과 업무회의를 갖고 있다. /최현백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3대 위기...시정 전면쇄신”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 인수위 첫 회의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광주시의 3대 위기를 거론하며 향후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강 당선자는 7일 인수위원회 출범 후 열린 첫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의 행복으로 보고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공직자의 행태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 같은 목표를) 가슴 속 깊이 받아들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인사와 기구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인 틀을 바꾸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시정에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당선자는 또 이날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3대 위기와 3대 기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당선자가 밝힌 광주시의 3대 위기는 ▲경제·문화적 자립기반 취약 ▲이명박 정부에 의한 정치·사회적 소외 ▲시민 참여·소통 부족 등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7대 광역시 중 6위, 전체 지역산업 중 문화산업 비율 1.4% 등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한 강 당선자는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나아졌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2광역경제권 지정·철단 의료복합단지 선정·세종시 수정안 등 각종 정책에서 광주가 소외되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강 당선자의 주장이다. 그는 또 “광주시청과 시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서 참여와 소통이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광주시의 발전에 모두가 동참하는 자긍심이 부족해졌다”고 말

하기도 했다.

강 당선자는 광주시의 3가지 기회로 ▲21세기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와 잠재적 지역역량 ▲지정확적으로 중국·일본 사이의 핵심 위치 ▲광물대고 있는 시민의 자의식을 꼽았다.

그는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에 대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의 모범·모델이 되는 도시를 의미하며 광주의 음식·기술·문화를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광주는 이제 일어설 때가 됐으며 말만 빛나는 도시가 아니라 진정 빛나는 도시를 만들자”고 인수위원들을 독려했다. 이날 출범한 인수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다음달 1일 민선 5기 출범 이후에는 공약집행단으로 명칭을 변경, 강 당선자의 재임기간 동안 공약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40대 전진배치...‘창조 도시’ 만들기

광주시 인수위원회 5개분과 15명 구성 70% 교수...30일까지 시정 밑그림 마련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의 인수인계를 돕게 될 제11대 광주시장 직무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7일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는 위원장 없이 기획총괄·문화경제·도시교통환경·복지여성·시민사회 5개 분야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인수위원은 오는 30일까지 강 당선자의 공약과 시민의 요구 등을 분석하며 각 분야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위 구성의 특징은 ▲교수 및 시민단체 출신 중용 ▲실정감각이 있는 40대 전진배치 ▲문화경제 중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5명의 인수위원 중 교수가 11명으로 73.3%를, 나머지는 모두 시민단체 관계자가 차지했다. 또 당선자 특보에도 정철웅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이 임명돼 인수위는 교수와 시민운동가 등 지역 내 지식인과 활동가로 채워졌다.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현실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강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특히 40대 약진이 두드러졌다. 기획총괄팀의 김일태 전남대 교수와 박해자 호남대 교수, 교통환경팀 조선대 이성기 교수 등을 제외하면 40대와 50대 초반이 대부분으로, ‘젊은 감각’을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 출신이나 지역원로 등이 주를 이루고 ‘끼워넣기식’으로 젊은층을 배정했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구성이다. 여성도 5명이 참가하는 등 ‘새로운 사고’를 가진 젊은층과 여성을 우대했다.

민선 3·4기 광주시장에 대해 사안별로 반대파를 밝혔던 교수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민선 3·4기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이 민선 5기의 밑그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화와 경제를 하나의 팀으로 묶었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문화와 경제의 융합을 추구하면서 문화산업을 광

■광주시 인수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전공분야	주요경력
기획총괄	김일태	전남대	재정학	전남대 경영대학장
	박해자	호남대	행정학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열	전남대	경영학	재경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문화경제	박양섭	전남대	경영학	LG생명과학(인도사업부) CEO
	강신겸	전남대	문화, 관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활력사업 자문위원
	김은실	전남대	패션디자인	지식경제부 RIS 사업단 부단장
	김홍식	동신대	체육	대한올림픽위원회 대한대학스포츠위원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	(전)광주광역시 문화산업 TF팀장
교통환경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	광주시 도시공익위원회 위원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전문위원회 위원
복지여성	장희선	푸른광주21사무처장		홍시단 사무처장
	장하경	광주대	사회복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
시민사회	반수경	광주YMCA이사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취업지원실장
	문기진	YMCA 금남로회관 관장		(전)광주 서구문화센터 관장
	서정훈	NGO센터 센터장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장

주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 당선자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문화경제팀은 교수 6명이 배정됐으며, 전공도 경영학·문화 및 관광·패션디자인·체육·신문방송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인수위원은 ▲당선자 공약 중심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145만 시민이 당선자에 바라는 여망 파악 ▲광주시 산하 전 조직과 공직자들이 ‘창조의 중심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시민이 자긍심 갖고 역할을 결집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시민정부’ 구성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강운태 당선자는 “인수위원은 개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각계 인사로 구성했다”며 “지역 발전을 바라는 광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들 인수위원들은 광주시의 각 실·국으로 구성된 인수지원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 사안 별로 토론을 통해 분야별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4대강은 정치투쟁, 영산강은 지역현안”

박준영 전남지사 “반대 단체장과 연대 않겠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과 영산강은 별개이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광역 단체장도 연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지사는 7일 전남도청 기자회견에서 복귀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사업은 정치투쟁이지만 영산강은 지역 현안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 반대와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분리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강운태 광주시장이나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북지사 등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타 지역 단체장과의 연대의사도 없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지사는 4대강 저지 투쟁에 대해

“다른 광역단체장들과 협의는 하겠지만 영산강살리기는 지역민의 요구이며 그 필요성도 있는 만큼 정치논리로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2004년과 2006년 영산강살리기를 말할 당시 반대한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와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강 살리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시작해 예산이 한강은 120%, 낙동강은 80%, 금강은 70% 이상 투입됐지만 영산강은 40%대에 머물렀다”면서 “영산강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참여정부 때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계속 건의했지만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어디에서도 관심

을 갖고 있는 곳이 없었다”며 “영산강 사업을 하지말자고 하면 국가하천인 영산강을 앞으로 누구보고 관리하라는 말이나”고 되물었다.

박 지사는 이어 민선 5기 도정운영과 관련해 “앞으로 농·수·축산업을 살려 죽어가는 지역의 중소도시를 살리겠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 등 전남이 변하고 있다”며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 강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잘사는 농어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그동안 유치한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2012 여수엑스포, 2013년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등 3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Honda가 드리는 6월의 특별한 혜택

- Accord 휘하에 지원! (은 할 200,000원 감면 혜택 (2010.6.1.~2010.6.30. 한정)
- Over Hybrid 우수상품권 300만 원 제공 또는 300만 원 무이자 할부 (2010.6.1.~)

Honda Car, J-ONE, 광주점 : (061-271-9999) 광주광역시 북구 남산동 2-1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장 누가되나

재선·3선의원 광주 4명, 전남 4명 출사표

6·2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차기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의장으로 누가 선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재선 이상 의원들이 의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3선인 손재홍(50·동구 2선거구), 나종현(66·남구 3) 의원과, 재선인 진선기(45·북구 1)·조호권(49·북구 5)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예비 시의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사실상 의장 선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별 분포는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20명, 민주노

동당 2명이며서 민주당이 압도적이지만, 의장선거 특성상 소수 정당이 캐스팅보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교육의원 표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의장선거는 2년 뒤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 지역위원장(동구, 북구 갑, 북구 을) 간의 대리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김재무(50·광양 3선거구) 의원을 비롯한 송대수(54·여수 2)·이호균(48·목포 3)·홍이식(52·화순 2) 의원 등이 의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최현일·김지희기자 cki@kwangju.co.kr

재선인 이호균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3선 의원이다. 이들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추락한 의회상 정립을 내세우며 물밑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송 의원은 출마를 저울질 하며 의장선거가 과열되지 않도록 후보들 간 조율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출마의사를 파악하고 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들(41명)과의 개별 접촉을 벌이거나 전화를 통해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홍 의원은 “의원들간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 개혁에 앞장설 적임자”라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현일·김지희기자 cki@kwangju.co.kr